

좋은저널리즘연구회 《기사의 품질: 한국 일간지와 해외 유력지 비교 연구》

‘고품질 기사’ NYT는 100건 중 55건, 한국은 7건

좋은저널리즘연구회

※ 본고는 좋은저널리즘연구회에서 발간한 《기사의 품질: 한국 일간지와 해외 유력지 비교 연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글은 이나연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작성했다.

뉴스 생산을 주도해온 신문이 외면당하고 있다. 뉴미디어 환경에서 뉴스 이용자는 신문이라는 종이 매체로도 뉴스를 이용하지 않을뿐더러 신문사가 온라인을 통해 공급하는 뉴스도 갈수록 외면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전자(종이 매체 뉴스 이용 급감)가 세계적 현상이라면 후자(신문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 이용 급감)는 한국에서 더욱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최근 옥스퍼드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를 온라인으로 주 3회 이상 읽는다는 독자는 2014년 각각 9%, 6%에서 2017년 18%와 16%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한국 주요 신문을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독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왜 생겨났을까? 한국 저널리즘의 문제는 무엇이고, 탈출구는 어디에 있을까?

‘기사의 품질’을 연구하는 이유

좋은저널리즘연구회는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 시작했다. ‘좋은 저널리즘’이란 영어의 ‘퀄리티 저널리즘(Quality Journalism)’을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영미권에서 고급지 혹은 권위지를 퀄리티 페이퍼(Quality Paper)로 부르던 전통을

따랐다. 즉 좋은저널리즘연구회는 퀄리티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을 지향한다. 한국 언론이 위기를 겪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좋은 저널리즘으로 평가받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는 한국 기자들이 뉴스 생산에서 선진국 수준의 품질 기준을 갖추지 못한 탓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한국 저널리즘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좋은 기사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좋은 기사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을 토대로 기사를 평가하는 등이다. 이를 위한 연구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도 장기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1차 연도(2017년)에는 신문 저널리즘 평가에 필요한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기사의 품질을 평가했다. 연구 인력의 한계로 서울에서 발간되는 주요 일간지 10개의 1면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한국 언론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서 평가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의 대표 신문도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미국 뉴욕타임스, 영국 타임스 그리고 일본 아사히신문 등이다. 최종적으로 국내 일간지 기사 694건, 뉴욕타임스 72건, 타임스 54건, 아사히신문 72건 등 총 892건이 분석에 포함됐다.¹ 《기사의 품질: 한국

일간지와 해외 유력지 비교 연구》는 이러한 작업의 결과물이다. 2차 연도(2018년)에는 국내 주요 방송 뉴스를 해외 방송사와 비교,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좋은저널리즘연구회는 김민환 교수(고려대 명예교수)의 제안으로 2016년 7월 시작해 매달 한 번씩 정기 모임을 열었다. 김경모(연세대), 박재영(고려대), 배정근(숙명여대), 이나연(성신여대), 이완수(동서대), 이재경(이화여대) 등이 초기 회원이나 연구회 문은 활짝 열려 있다.

좋은저널리즘연구회는 국내 종합 일간지 기사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형식적 측면(기사의 길이 유형 등)이 해외 유력지와 어떠한 차이를 지니는지 분석했다. 또한 기사의 품질을 취재원의 질과 정보의 가치라는 기준으로 해외 신문사와 비교했다. 아울러 미국의 ‘우수 저널리즘을 위한 프로젝트(PEJ, 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에서 제시하는 고급 기사의 기준을 토대로 기사의 품질을 비교, 분석했다. 또한 그동안 학계에서 국내 저널리즘의 잘못된 관행(가령, 무주체 피동형 문장, 제목의 직접 인용구 사용) 등이 해외 주요 언론사에 비해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되는지도 비교했다.

형식적 제약이 질적 향상 저해

국내 일간지 기사는 비교 국가의 기사에 비해 유독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내 기사는 평균 16개 문장으로 이뤄졌으나 뉴욕타임스 기사는 평균 68개 문장, 타임스는 27개로 이뤄졌다. 이처럼 기사가 짧은 것은 국내 언론사의 경우 1면에서 다른 지면으로 이어지는 점프 기사의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즉 국내 언론사의 점프 기사는 약 14%였으나 뉴욕타임스는 모든 기사가 점프 기사였고 타임스는 65%에 이르렀다.^[그림1]

짧은 기사라는 형식은 기사 품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기사가 짧을수록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이나 정보가 적을 수밖에 없다. 기사의 길이는 기사 유형에도 영향을 미친다. 짧은 기사는 이슈나 사건의 핵심 내용만 전달하는 스트레이트형 기사에 적합하며, 맥락까지 설명하는 분석·해설 기사에는 맞지 않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도 국내 신문사의 스트레이트 기사는 84%에 이르고 분석·해설 기사는 10.1%에 머문 반면, 뉴욕타임스의 경우 스트레이트 기사는 20.8%, 분석·해설 기사는 59.7%에 이르렀다.^[표1] 같은 맥락에서 국내 언론사의 경우 특정 이슈를 다루면서 원인·과정·결과 그리고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다룬 기사의 비중이 4.5%에 불과했지만, 뉴욕타임스는 19%, 타임스는 13%, 아사히신문도 14%에 이르렀다.

이처럼 1면 기사가 스트레이트 유형의 짧은 기사로 채워지는 데는 국내 신문사들이 스트레이트와 분석·해설 기사를 분리하는 ‘모자이크식 편집 관행’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이재경, 2006). 이는 1면에는 사실만 담아 짧게 스트레이트로 싣고, 관련 분석 혹은 해설 기사는 다른 지면에서 다루는 관행을 말한다. 기자 입장에서는 사안을 통합적으로 다룰 필요 없이 자신의 출입처에 관련된 내용만 쓰기 때문에 제작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높다. 그러나 독자 입장에서는 관련 기사를 다 읽지 않는 한 해당 이슈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기사 쓰기 관행은 기자에게도 부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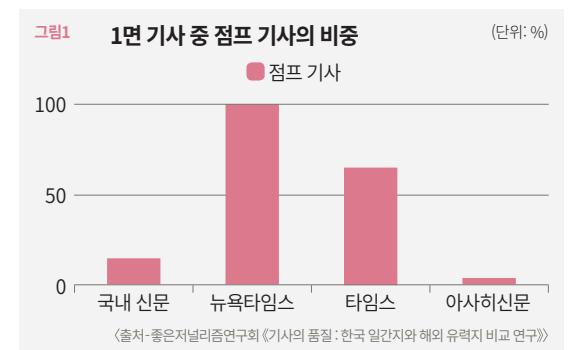


표1 기사 유형 비율 (단위: %)					
구분(개)	스트레이트	분석 해설	의견 기사	피처 기사	사진 기사
국내 일간지(694)	84.0	10.1	1.2	4.5	0.3
뉴욕타임스(72)	20.8	59.7	1.4	18.1	0
타임스(54)	87.0	9.3	0	3.7	0
아사히신문(72)	72.2	22.2	1.4	4.2	0
전체(892)	78.1	15.0	1.1	5.5	0.2

〈출처-좋은저널리즘연구회 《기사의 품질 : 한국 일간지와 해외 유력지 비교 연구》〉

사안을 심층적이고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기사를 짧게 쓰는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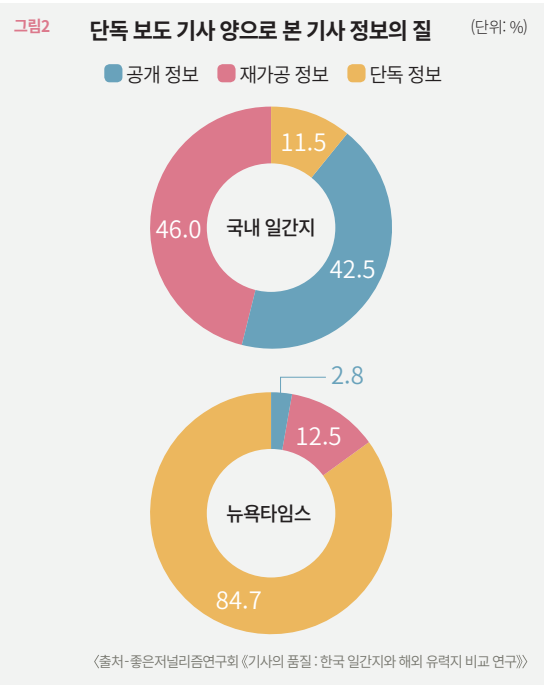
취재원 수와 질 모두 낮아

기사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취재원(source)이다. 저널리즘에서는 취재원이 전해준 내용(말 혹은 자료)뿐 아니라 주체, 즉 누가(혹은 어떤 기관) 그 내용을 전달했는지도 중요하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뉴스 가치가 달라지며 발언 내용이 신뢰할 만한지도 판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취재원을 실명으로 밝히는 ‘투명 취재원’의 사용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조사에서도 국내외 신문사의 투명 취재원 수를 비교했다. 그 결과 국내 언론사의 경우 투명 취재원 수가 기사당 2.6개에 머물렀으나 뉴욕타임스는 8.4개, 타임스는 4.3개, 아사히신문도 3.8개에 이르렀다.^[표2] 국내 신문사의 경우 기사의 토대가 되는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이 실명이 아닌 기사가 8.4%에 이르렀으나 뉴욕타임스는 전혀 없었고,

표2 투명 취재원 수 (단위: 개)			
구분(개)	평균	최솟값	최댓값
국내 일간지(694)	2.6	0	14
뉴욕타임스(72)	8.4	0	23
타임스(54)	4.3	1	10
아사히신문(72)	3.8	1	18

〈출처-좋은저널리즘연구회 《기사의 품질 : 한국 일간지와 해외 유력지 비교 연구》〉

타임스는 3.7%, 아사히신문은 1.4%였다. 취재원 사용과 관련해 중요한 이슈 중 또 하나는 기사에 사용된 취재원의 독립성이다. 취재원은 기사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이슈를 다루는 기사에서 취재원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 기사에 사용된 독립 취재원의 경우 국내 언론사는 평균 0.6개에 불과했으나 뉴욕타임스는 4.24개, 타임스는 2.22개, 아사히신문은 0.8개였다. 국내 언론에서는 일반 시민을 취재원으로 활용하는 정도가 비교 국가에 비해 크게 낮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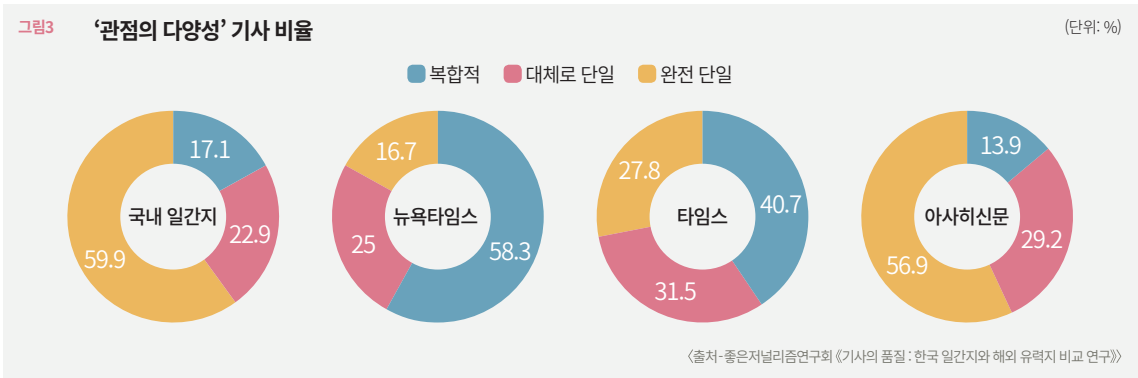
“
PEJ가 제시하는 기준에 의하면
고품질 기사 비율은 뉴욕타임스가
55.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타임스(31.5%),
아사히신문(9.7%)순이었다.
이에 비해 국내 일간지 1면에 게재된 기사 중
좋은 기사의 비중은 7.5%에 머물렀다.
”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일반인 취재원이 포함되지 않은 기사 비중이 국내 언론사의 경우 93%였으나 뉴욕타임스는 66.7%로 훨씬 낮았다. 기사가 주는 정보의 가치는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얼마나 독창적인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1면에 실린 기사가 해당 언론사만 보도하는 단독 정보인지, 공개된 정보를 재가공한 것인지, 혹은 공개된 정보인지 등으로 나누어 분석, 비교했다. 그 결과 국내 기사의 경우, 공개된 정보와 재가공 정보가 89% 가까이 이르고 단독 정보는 11.5%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뉴욕타임스는 재가공 정보가 12.5%, 단독 정보는 84.7%에 이르렀다.^[그림2]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신문이 인터넷 뉴스보다 우월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해 한국 신문의 위기가 발생했다는 ‘저가치 제공설’(이준웅·최영재, 2005)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즉 한국 신문의 위기는 인터넷과 온라인 미디어 환경이라는 현실적 위협도 크지만 고유한 가치를 갖는 품질 높은 기사를 생산하지 못하는 신문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국내 신문의 좋은 기사 비율 7.5%

인터넷 기술을 토대로 한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저널리즘이 위기에 처하자, 미국에서는 ‘우수 저널리즘을 위한 프로젝트(PEJ)’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하나는 고급 기사의 요건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기사를 평가하는 것이다. PEJ 보도지수의 ‘고품질 기사’ 요건은 ①취재원의 질을 판단하는 투명 취재원 4명 이상 ②이해 당사자 4개 이상 ③관점의 다양성(복합적 관점) 등이다. 국내에서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추진한 연구에 여러 차례 적용된 바 있으며, 이번 연구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사가 어느 수준인지 해외 신문사와 비교했다.

이해 당사자란 기사의 사안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주체를 뜻한다. 언론이 다루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있는 만큼, 언론이 최대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등장시킬수록 좋은 기사로 평가된다. 본 연구 결과, 국내 일간지의 이해 당사자 수는 기사당 평균 2.6개였으나, 뉴욕타임스는 7.7개, 타임스는 3.9개, 아사히신문은 3.1개로 나타났다. 관점의 다양성이란 하나의 기사가 특정 이슈를 다룰 때, 찬성과 반대 등 다양한 관점을 고루 포함하고 있는가를 말한다. 예를 들어, 찬반이 명확히 갈리는 갈등적 이슈에서 찬성 관점에서만 혹은 반대 입장에서만 기사를 작성한다면 한 사회의 목소리를 모두 담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도 기사를 ‘복합적 관점’(하나의 견해가 기사의 3분의 2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면서 기사의 나머지 부분에 다른 견해가 제시된 경우), ‘대체로 단일 관점’(중점적 견해에 반하는 견해가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만 언급된 경우) 그리고 ‘완전히 단일 관점’(중점적 견해에 반하는 견해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구분해 각각의 기사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했다. 그 결과 국내 기사 중 ‘복합적 관점’의 기사는 17%에 불과했고, 뉴욕타임스 기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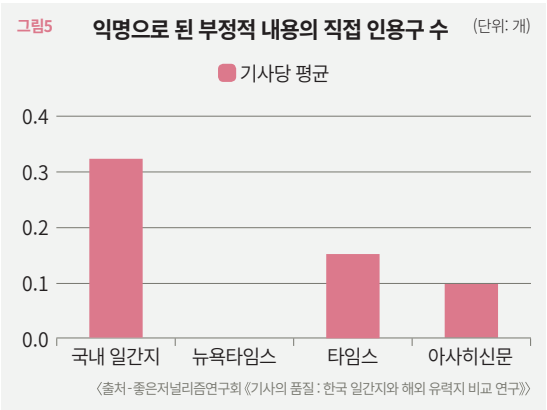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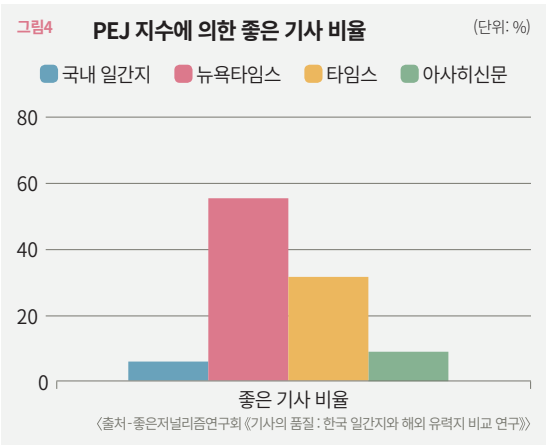


58.3%, 타임스는 40.7%에 이르렀다. 아사히신문만 국내 신문사보다 낮은 13.9%에 머물렀다. **[그림3]** 특히 국내 기사의 경우 ‘완전히 단일 관점’의 기사가 약 60%로 기사 열 건 중 여섯 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사에 드러난 중점적 견해에 반대되는 관점을 지닌 집단에서는 해당 신문사의 기사를 정파적 혹은 편파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PEJ 기준에 따른 고품질 기사 비율은 뉴욕타임스가 55.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타임스(31.5%), 아사히신문(9.7%)순이었다. 이에 비해 국내 일간지 1면에 게재된 기사 중 좋은 기사의 비중은 7.5%였다. **[그림4]** 다시 말해, 뉴욕타임스의 경우 기사의 절반 이상이 실명을 활용한 취재원을 네 명 이상 사용하고, 기사와 관련된 서로 다른 이해 당사자가 네 개 이상이며, 복합적 관점으로 작성된 반면, 국내 기사는 열 개 중 한 개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부정적 보도 관행도 심각해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언론에서 두드러진 부정적 보도 관행도 확인됐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익명의 부정적 인용, 인용구의 주관적 술어 사용, 무주체 피동형 문장 그리고 제목의 직접 인용구 사용 등을 대표적인 잘못된 보도 관행으로 지적해왔다. 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 이러한 관행은 미국, 영국, 일본의 대표적 일간지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익명의 부정적 인용’이란 기자가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해 특정 대상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다. 익명을 이용한 부정적 보도는 기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취재원을 동원해 기자의 주관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 학계나 뉴욕타임스등 유력지에서는 금기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국내 일간지에서는 기사당 평균 0.32개의 부정적 내용의 익명 인용구를 사용했으나, 뉴욕타임스는 단 한 건의 기사에도 익명의 부정적 인용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림5]** 인용구의 주관적 술어도 국내에서 유독 빈번하게 사용됐다. 인용구의 주관적 술어란, 기자가 취재원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면서 인용구의 서술어를 주관적인 언어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라고 압박했다, 비판했다, 강변했다” 등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기자가 취재원의 발언을 기사에 인용하면서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미국 교과서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 주관적 술어의 사용 개수는 국내 일간지의 경우 기사당 평균 1.4개인 데 반해, 뉴욕타임스 1.2개, 타임스 0.72개, 아사히는 0.85개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 중 주관적 술어를 사용한 기사의 비중은 국내 일간지가 61%로 뉴욕타임스(50%), 타임스(46%), 아사히신문(47%)보다 높았다. 무주체 피동형 문장도 국내 기사에서 많이 보였다. 무주체 피동형 문장이란 “~로 알려졌다/전해졌다”



“~것으로 전망된다” “~로 지적된다” 등의 문장이다. 국내 기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문장의 특징은 말한 주체를 알기 어려워 사실 확인이 쉽지 않다. 이번 조사에서 국가별 무주체 피동형 문장은 국내 일간지가 기사당 1.19개, 아사히신문 0.82개로 나타났지만 뉴욕타임스와 타임스는 모두 0건이었다. 국내에서 갈수록 심해지는 부정적 관행 중 하나는 취재원의 발언을 제목으로 사용하는 ‘제목의 직접 인용구 사용’이다. 이번 조사 결과 국내 언론사 기사 중 59.1%가 취재원의 발언을 직접 인용해 제목으로 사용했다. 반면 뉴욕타임스는 2.8%(1건)에 불과했고 타임스는 한 건도 없었으며, 아사히신문도 13.9%에 머물렀다. **[표3]** 문제는 국내에서 직접 인용구를 활용한 제목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자들은 이처럼

표3 제목의 직접 인용구 사용 비율 (단위: %)

	직접 인용구 있음	직접 인용구 없음
국내 일간지(694)	59.1	40.9
뉴욕타임스(72)	2.8	97.2
타임스(54)	0	100.0
아사히신문(72)	13.9	86.1
전체 (892)	47.3	52.7

〈출처-좋은저널리즘연구회 《기사의 품질 : 한국 일간지와 해외 유력지 비교 연구》〉

광범위하게 제목에 직접 인용구가 사용되는 현실은 기자들이 이 관행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취재원의 특정 발언을 활용한 제목은 기사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연구자들은 취재원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객관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기자가 취재원 발언을 검증하지 않은 채 보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사의 검증과 판단을 포기하는 방관적 행위인 만큼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관행인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재경(2006), ‘한미 신문의 대통령 취재 관행 비교: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 언론과 사회, 14(4). 37-69.
- 이준웅·최영재(2005), ‘한국 신문 위기의 원인’. 한국언론학보, 49(5), 5-35.
- Reuters Institute(2014), Digital News Report. URL: <http://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sites/default/files/research/files/Reuters%2520Institute%2520Digital%2520News%2520Report%25202014.pdf>
- Reuters Institute(2015), Digital News Report. URL: <http://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sites/default/files/research/files/Supplementary%2520Digital%2520News%2520Report%25202015.pdf>
- Reuters Institute(2016), Digital News Report. URL: <http://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sites/default/files/research/files/Digital%2520News%2520Report%25202016.pdf>
- Reuters Institute(2017), Digital News Report. URL: https://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sites/default/files/Digital%20News%20Report%202017%20web_0.pdf

1 분석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주구성표집 (constructed week sampling)으로 매달 2일씩 총 24일, 4주에 해당하는 날짜를 무작위로 추출해 해당 날짜의 1면 기사를 3개씩 표본으로 선택했다.